

2013년도 1학기 CSU 수학보고서

<정지원, 권혜민, 신현준, 이유정, 황윤정>

1. 출국 전 준비사항 <신현준>

- ① 각종 서류
- ② 비행기 티켓 발권
- ③ DS2019
- ④ 비자발급
- ⑤ 짐 싸기 및 짐 부치기

2. 수강신청 <권혜민>

- ① 수강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② 수강 과목

3. Housing <권혜민>

- ① 기숙사
- ② 기숙사 신청방법
- ③ 기숙사 변경신청
- ④ Meal plan

4. 프레즈노에 도착하여 개강전까지 <이유정>

5. 학교생활 <황윤정>

- ① DORMITORY
- ② FITNESS CENTER
- ④ CLASS
- ⑤ ISA/ ISF

6. 결론 <정지원>

1. 출국 전 준비사항

① 각종 서류

학교에서 합격통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CSU 담당자에게서 Acceptance letter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담당자가 Tatyana였는데, 아마 이번 학기부터 Crystal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Crystal로부터 오는 이메일을 자주 확인하시고 CSU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New Student Bulletin, Important date, Fresno e-mail account와 같은 메일도 아마 올텐데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들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숙사에서 오는 Early form 등도 기숙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숙사 관련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csufresno.edu – CSU 홈페이지

universitycourtyard.org – 기숙사 홈페이지

② 비행기 티켓 발권

아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비행기 티켓 발권일텐데요. 저희는 김해 – 나리타 – LA – Fresno로 끊었구요. 나리타에서 3일동안 Stop over해서 도쿄 여행하고 Fresno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좀 늦게 끊어서 편도로 1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아마 서두르시면 더 저렴하게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③ DS2019

DS2019는 학교에 입학신청서 같은 것인데요. 국제처로부터 DS2019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DS2019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는 비자발급, 미국입국심사 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니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④ 비자발급

미국은 비자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비자 발급을 위해 씨티 은행에 가서 영수증을 구매 하여야 하고, 신청서 작성, 미 대사관 방문 등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아마 국제처에서 비자 설명회를 할텐데, 일정을 잘 알아보시고 참석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⑤ 짐 싸기 및 짐 부치기

일단 짐 싸는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의류입니다. 2월 현재 여기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고 낮에는 반팔을 입고 돌아다녀도 될 정도에 따뜻한

날씨입니다. 일교차가 커서 남방이나 후드 같은 걸칠 수 있는 옷이 유용할 것입니다. 저는 Formal한 행사도 자주 있을 줄 알아서 세미 정장도 한 벌 가져왔지만 아직까지는 입을 일이 없었네요^^

또한 여기는 대부분 Free한 스타일에 옷을 입고 다닙니다. 학교 Shop에서 판매하는 Fresno State Bulldog 로고가 박힌 후드티나 트레이닝 복은 정말 아주 진짜 대박 유용하게 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Formal한 스타일에 옷은 크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구요. 필요하다면 한 벌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운동을 즐겨해서 농구복이나 축구복 등도 챙겨왔는데요. 스포츠의 나라이니만큼 스포츠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 있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많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운동복도 많이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옷만 줄여도 짐이 많이 줄어드니까 잘 생각하시고 짐 싸시는 것이 준비과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미국은 110V를 사용하여 전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충전기류를 제외한 전자제품은 전압이 맞지 않아 사용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학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월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 부피가 많이 나가는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두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현지에서는 렌즈 구입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원데이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은 한국에서 많이 챙겨오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짐의 일부를 EMS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기숙사로 먼저 부쳤는데요. EMS를 이용할 경우 20kg에 20만원 정도 듭니다. 옷 무게만 줄여도 상당히 무게가 줄어듭니다.

EMS 가격조회 <http://ems.epost.go.kr:8080/front.EmsDeliveryDelivery01.postal>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시게 되는 분은

University Courtyard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

5152 N. Barton, MS RH82

Fresno, CA 93740-8013

"New Student(이름) Spring or Fall 2013 or 2014"로 택배를 보내시면 됩니다.

EMS를 이용할 경우 3~5일 정도 걸립니다.

2.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파견학생으로 선발되고 나면 CSU 의 IBP(International Business Program) 담당자로부터 메일이 옵니다. 메일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강신청 웹사이트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수강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므로, 메일을 꼼꼼히 읽어보고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과목 계열을 찾아 클릭하면 세부 과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목 계열은 ACCT(accounting)이고 세부 과목들은 (ACCT 4A, ACCT 4B 등)이 있습니다. 세부 과목 옆에 과목명이 뜨는데 예를 들면, ACCT 4A 는 회계원리, ACCT 4B 는 관리회계입니다.

같은 과목명이라도 시간, 커리큘럼 등을 보고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오전 8시가 제일 빠른 수업이며, 수업은 75 분씩 주 당 2 번, 50 분씩 주 당 3 번 혹은 주 당 1 번에 150 분씩 진행됩니다.

12 학점 이상 수강하길 원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extra tuition(학점 당 \$200)을 지불하고 수업을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즈니스 과목은 거의 3 학점 혹은 4 학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강 후 3 주 이내로 수강정정을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 비용도 지불해야 하므로, 첫 수강신청 시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표를 짜길 바랍니다.

**** 수강 신청은 혼자 하는 것보다 선발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사이트가 온통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혼자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수업을 듣는 것은 추천하지 않지만, 첫 학기는 적응이 필요하므로 특정 과목을 몇 명씩 겹쳐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영남대 강의평가와 마찬가지로 미국 학생들이 교수님을 평가해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커리큘럼에서는 찾을 수 없는 숙제 유형, 시험 유형, 수업 스타일 등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http://www.ratemyprofessors.com/SelectSchool.jsp?country=0&stateselect=CA>

② 수강 과목

IBP 학생으로서 최소 12 학점을 들어야 하고, 그 중 9 학점은 반드시 Business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Business 외에 다른 전공의 수업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non-business class 에 대해서는 IBP 에서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영남대 본인 학년의 커리큘럼을 따라 비슷한 과목을 신청하거나, 지도교수님과 상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출국 전에 국제처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 OT 에 참석하여 학점인정과 관련된 정보를 듣길 바랍니다.

아래는 현재 저희가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ACCT 4A : Financial Accounting Principles and Systems_Cheryl Copeland

기업회계원리, 문제풀기 숙제가 매주 있습니다.

BA 105W : Business Communication_Dennis Mohle

비즈니스 언어와 문법 등에 대해 배웁니다.

BA 174 :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Business_Kevin Lee

국제경영학, 강의 위주의 수업입니다.

MKTG 150 : Sports Marketing_Brian Glover

영남대에는 없는 과목입니다. 책이나 이론보다는 실례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 기수의 수기를 살펴보면 각자 들은 과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계나 재무 과목은 강의 위주이고, 마케팅의 경우 팀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3. Housing

① 기숙사

1) Community style

Community 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기숙사 형태입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방이 있으며, 각 층에 사는 사람들과 샤워실과 화장실을 공유합니다. Community 는 Homan hall, Graves hall, Baker hall 로 나뉘집니다. 각자의 hall 에는 Quite Time 이 있는데, Homan hall 은 밤 9 시, Graves hall 은 밤 10 시, Baker hall 은 밤 11 시 이므로 개인의 성향에 맞추어 기숙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mmunity 방은 Double room 과 Single room 두 종류로 나뉘니다. Double room 은 한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형태이고, Single room 은 독방입니다. 개인공간을 중요시

한다면 Single room 이 적합하겠지만, 외국인 룸메이트와 같이 살면 영어를 쓸 기회도 많아지고 문화적 차이나 사고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으므로 Double room 을 추천합니다.

또한 Community 일층에는 큰 홀과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할 수 있으며, 홀에는 DVD, Board game 등의 여가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Wi-fi 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세탁은 각 hall 의 1 층에 있는 세탁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탁은 1.25 달러, 건조는 1 달러로 Atrium 에 가서서 카드 구입 후 충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2) Suite style

Suite 는 적게는 2 명에서 많게는 6 명까지 거실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Suite 는 Sycamore, Sequoia, Aspen, Birch, Cedar, Ponderosa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Suite 의 경우는 개인공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서 Quite Time 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Suite 의 방 형태는 Single room, double room, triple room 으로 나뉩니다. Suite 는 개별적으로 거실이 있기 때문에 Community 와 달리 홀과 주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uite 는 각 층별로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 가격은 Community 와 동일합니다.

② 기숙사 신청방법

Community style 과 Suite style 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기숙사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http://www.universitycourtyard.org/application_option.html 접속, **Downloadable Application** 클릭,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서 메일에 첨부해서 보내도 됩니다.

기숙사 비용 지불방법은 One payment, Two payments, Monthly payments 세 종류가 있습니다. Two payments 를 하실 경우에는 10 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Monthly payments 의 경우에는 30 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③ 기숙사 변경신청

개강 후 2 주 정도 지나면 Room change 와 Room swap 공지가 뜹니다. 룸메이트와 자신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Room change 기간에 Atrium 에 가서 양식을 작성하고 선호하는 Hall 을 지정해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Room swap 의 경우는 1:1 로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서로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룸메이트의 사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보통 Room swap 기간이 끝난 뒤 Room change 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50 달러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④ Meal plan

Meal plan 은 기숙사 신청 시,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7Meal plan, 10Flex Plan, 14Meal Plan, 14Flex plan, 19Meal plan 5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숫자는 일주일에 Dining Hall 을 이용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Flex 는 ID 카드 안에 125 달러가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학교 안 음식점이나 스타벅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Meal Plan 은 이전 학기 기숙사 거주자들에게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적당한 것은 10Flex Plan 이지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Meal Plan 또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2 주 정도 선택한 Meal Plan 에 맞추어 먹다가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Dining Hall 지하에 있는 Front Desk 에 가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모두 Community style Double room 에 살고 있습니다. 오프 캠퍼스 하우스에 대한 정보는 2011 학년도 수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프레즈노에 도착하여 개강전까지

저희 다섯명은 다 같이 일본을 경유하여 일본에서 3박4일을 보낸 후 LA공항을 경유해 1월 9일 fresno에 도착하였습니다. 개강은 21일이었지만 11일에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고 학교 주변 지리를 익히고 시차 적응을 위해 미리 도착하였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도 두 팀으로 나누어 기숙사로 갔습니다. 기숙사 접수를 위해 기숙사 메인 건물인 atrium으로 가서 키를 받고 생활 규칙들을 듣고 기숙사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baker 이라는 기숙사 중 quiet time이 가장 늦은 community style의 기숙사로 배치되었습니다. 기숙사 건물에 들어가고 화장실 내층 내방 들어가기 위해 모든 문에 카드키가 사용되었습니다. 도착 후 짐을 미리 부친 친구들은 atrium에서 바로 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개강이 한참 남았었기 때문에 학교에 사람들은 볼 수 없고 무척이나 조용했습니다. 장시간 비행 후 도착이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지만 다이닝홀이 오픈 전이었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가 사먹어야 하였습니다. 기숙사 바로 근처에 fast food 점들이 다들 모여 있으므로 그 중에 선택하여 아무 곳에서 식사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 곳 fresno는 위험한 동네로, 주변에는 아무 것도 없는 텅 빈 도시입니다. 식사를 하러 가실 땐 해가 지기 전 미리 사러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혹시 밤에 나가는 일이 발

생하더라도 혼자서 다니는 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이라도 밤중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지나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경찰들로 항상 돌아 다닙니다. 밤 중 혹시나 다니기 무서우시면 학교 중간중간 비상기동을 통해 호출을 하면 경찰들이 그 곳으로 와 가시는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이틀 뒤 비지니스 건물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식사제공 합니다. 저희 그룹은 하루동안 두번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는데 나중에 한번도 오리엔테이션이 있기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작은 추첨을 통해 선물도 주는데 조금 그냥 학교 생활 관련한 지루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다시 기숙사로 돌아 갔습니다. 해가 무척이나 빨리 지기 때문에 구경하시고 싶으시면 아침 일찍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5일부터는 다이닝 홀이 오픈하여 다이닝 홀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였고 점점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 차가 없이는 이동하기가 불편하고 버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미리 도착해서 근처를 구경하고 돌아 다니는 것은 좋은 생각 같지 않습니다. 일찍 오더라도 기숙사 친구들을 만나기는 힘드므로 개강 몇일 전에 도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도착하니던가 아니면 오리엔테이션 참석 하루 전에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찍 왔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숙사에 남아 있는 친구들과 먼저 친해질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않으셨더라도 비지니스프로그램 직원에게 말해서 나중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clearance card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Fresno에 도착을 위해 san fran과 LA 경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팀은 San fran에서 바로 fresno로 왔지만 미리 오셔서 두 지역 중 한 곳을 여행하신 후 fresno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5. 학교생활

① DORMITORY

저희 5명은 모두 Community Style의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권혜민양, Graves, 신현준군과 이유정양은 Baker, 정지원군은 Homan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숙사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QUIET시간이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숙사는 등,하교나 도서관 다니기에 편하고 안전하며 다이닝홀에서 뷔페 형식으로 끼니를 때울 수 있어 좋습니다. 만약 차나 자전거가 있다면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개인공간을 가지는 기회로 PALAZZO나 볼독 빌리지와 같이 학교 밖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층마다 쇼파가 있어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쉴 수 있고, 1층 홀에는 키친, 스터디룸과 TV가 있어 TV도 다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해먹고 싶으면 ATRIUM에 가서서 여권을 맡기고 키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무료). 저 같은 경우는 빌리기 번거로워서 그냥 냄비를 샀습니다. 홀에서는 이벤트(노래자랑, 팝콘 같은 먹을 거리 무료제공)들도 자주 열립니다. 룸메이트를 잘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제 룸메이트는 제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신기해하며 호기심반 관심반으로 질문도 많이 해주고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갈 때 차로 데려다 주고 같이 골라주며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만약 룸메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ADVISOR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SWAP기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맨발로 방에서 생활하지 않고 카펫이 깔린 방에서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신을 실내화가 필요합니다.(월마트에서도 살 수 있음)

② FITNESS CENTER

여기오면 자연스럽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 살찌 것 같은 걱정 많이 듭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그리고 여기 짹짹 친구들에게 기죽지 않기 위해 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다행히 기숙사 바로 앞 ATRIUM 안에 조그마한 FITNESS CENTER가 있어 운동하고 싶을 때마다 그냥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그보다 더 큰 RECREATION CENTER도 학교 외각에 있는데 거기는 기숙사랑 멀어서 아직 한번도 이용해보지는 못했지만 구경해보니 스쿼시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시설이 좋습니다.

③ LIBRARY

우리학교 중도도 물론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보다 더 넓고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는 분위기라서 시끄러운 게 싫다면 individual room(한방에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음)에서 혼자 들어가서 문 닫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basement에는 쇼파도 있어서 누워서 공부해도 되고 옆드려서 공부해도 되고 밥 먹으면서 공부해도 되는 신세계입니다. 보통 평일(월~목)은 11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물 안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아메리카노를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반 값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한 장에 0.12정도 입니다. 비싸서 그런지 대부분의 친구들 방에 프린터기 한대씩은 있는 듯 합니다.

④ CLASS

수업도중 끼니를 해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메리카 스타일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수업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자기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손 안 들고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각하면 클래스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교수님도 계실 정도로 지각에는 엄격한 것 같습니다. 정각에 문을 잠궈버립니다. 안 그러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한국인 교환학생으로서 나쁜 인상을 안 남기기 위해서 지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숙제나 클래스 공지사항은 우리학교 강의지원과 비슷한 blackboard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합니다.

시험은 긴 서술형식은 없고 사지선다형, T/F이 보통이고 주관식이더라도 간략하게 정의를 적는 식의 시험이 전부입니다. 교환학생임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므로 웬만큼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F받을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⑤ ISA/ ISF

ISA는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 이라는 뜻으로 International Student들을 위해서 도와줍니다. 함께 밥 먹고 놀기도 하며 여행을 함께 가기도 합니다. Facebook으로 친구가 되면 언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ISF는 International Student들이 함께 금요일 저녁6시마다 모여서 저녁을 먹고 게임하고 성경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친구들을 사귀기 어렵다면 이 자리에 가셔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6. 결론

저는 현지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적겠습니다. FRESNO는 캘리포니아의 중앙에 있는 도시로서, 캘리포니아 5대 도시에 포함되어있는 도시입니다. 농업도시라서 소똥냄새가 가끔 나거나, 놀 장소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중앙에 위치해 있어 LA나 샌프란시스코 등 다른 지역으로 여행가기가 좋습니다. 저희 5명은 전부 Community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에 있는 Apartment에서 자취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숙사의 장점은 매일매일 화장실과 홀 청소를 해주며 다이닝홀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며, 자취의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며 자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밤늦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술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FRESNO는 미국에서도 위험한 몇 개의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차가 있으면 밤늦게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룸메이트들이 21살 이하의 신입생들 입니다. 미국은 21살이 되어야 술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룸메이트와 술을 마시려면 방에서 조용히 몰래 마셔야 합니다. 만약 룸메이트가 21살 이하라면, 방에 술을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온 학생들은 저희보다 일주일 일찍 FRESNO에 도착해서, 학교 주변 INN에 묵으며 자취할 아파트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만약 자취를 하실 거라면 Palazzo, Maple wood 아파트를 추천 드립니다. 학교 앞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숙사에 사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1학기만 기숙사에서 살다가 다들 자취를 하기 위해 나갑니다. 그 이유는 기숙사는 방 크기 및 quality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기숙사의 장점은 화장실과 홀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 늦게 까지 공부를 하거나 Atrium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trium은 24시간 개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같이 영화를 보거나 Fitness Center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닝홀에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닝홀은 나오는 음식들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빨리 질린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한번씩 특식이 나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취를 하면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단점과 매일매일 요리를 해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가 있다면 학교에서 늦게 까지 있어도 되지만, 차가 없다면 식재료를 사러 가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따라서 자취를 할거라면 미국 애들과 같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애들은 18살이 지나면 대부분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가 없더라도 차가 있는 친구를 사귀면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월마트를 가거나 패션 페어를 갈 때 버스를 이용합니다. 버스를 이용해보면 아시겠지만 한국 버스와 다르게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개강 후 몇몇 미국 친구들을 사귀면 당연히 버스를 안타게 될 것입니다.

기숙사와 자취의 비용은 한달에 \$300가까이 차이납니다. 자취는 훨씬 싸며 방이 넓고 자유로운 대신 식사를 알아서 해결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숙사에 살 것이냐 자취를 할 것이냐의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미국은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주변에 China peak이라는 스키장이 있어서 스노우보드도 탈 수 있습니다. 축구는 예외입니다. 미국인들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축구를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마다 축구를 하는 모임이 있어 저는 그 모임에 참가 하고 있습니다. 특정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운동에 필요한 용품을 챙겨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한국에도 용품이 없는데 미국에서 축구를 하기 위해 축구화를 한국에서 사서 오는 행동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모든 물가는 미국이 한국보다 더 싸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 헤어드라이기와 거울, 건전지 등을 모두 사서 택배로 부쳤습니다. 총 20kg를 부쳐서 20만원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 이였습니다. 한국 헤어드라이기는 볼트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거울과 건전지는 월마트에 가면 전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짐을 싣다면, 캐리어에 옷 몇 벌만 넣어서 올 것입니다. 옷도 가디건과 니트, 야상 같은 불편하면서도 패션어블한 옷을 많이 가져왔지만,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FRESNO에는 패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앞 Kennel bookstore에서 19달러 짜리 후드티를 여러 벌 사서 입고 다닙니다. 불편하면서 이쁜 옷은 2벌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면 패션페어에 가서 사면 됩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nayoungke7@nate.com으로 메일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